

2010 5월호 제422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5월호

발행일 : 2010. 5.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운자
편집인 : 박인례
담당 : 원혜진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A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해럴드미디어
대표 박행환

비매품

주부교실

2010
통권 제422호 5

생각해봅시다	4	워킹맘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김태현
전국지도자대회	6	소통과 화합의 세상을 펼쳐는 전국지도자대회
	9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고발사례	12	소비자의 소리/오성희
소비자정보	14	가전제품, 똑똑한 관리 노하우
	16	과일·채소류 이렇게 씻으세요
소비자경보	17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조심!
수필	18	꽃 선물/이세기
생활정보	20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보며 배워요!
문학정보	22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소식	23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34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표지사진 : 소통과 화합의 세상을 펼쳐는 전국지도자대회(중앙회, 2010. 4. 20~21),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실버 경제교육(충청남도 천안시지회, 2010. 4. 26)〉



워킹맘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김 태 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녹음 이 점점 짙어지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5월엔 가정과 관련된 날만 해도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11일), 부부의 날(21일)로 이어지는 기념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사회 가정의 모습을 어떨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9년 연구보고서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 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의 결과를 봐도 한국 근로자들은 “평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2~4시간 미만’ 인데다가, “평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빈도”도 ‘1주일에 2~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동 기관의 또 다른 2009년 연구보고서인 <성평등 실천 국민실

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 사적생활영역을 중심으로>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가사활동에 있어 남편이 여성의 절반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즐겨보고 있는 개그프로그램인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속 남녀 상황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라 좀 씁쓸합니다.

위와 같은 통계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가족양립이 어려워지는 까닭이 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 값, 자녀들 교육문제 등 우리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 신경써야 할 것은 이미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더욱이 워킹맘의 경우 직장가 가정에서의 이중고로 스트레스 또한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한번 이탈한

후, 재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한 경력단절, 경기침체로 더욱 불안정한 여성비정규직 문제 등의 고용현실까지,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여성들의 재취업 실태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50% 내외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와 기업에서 인력활용의 다양한 범주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여성고용시장은 냉각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이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여성들이 앞으로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일하는 어머니 지원 정책,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일관되게 지속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장년 여성, 여성 노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적합한 일자리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

지기 마련입니다. 여성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하여 여성친화적인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워킹맘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모두의 균형적인 삶을 위해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과감히 도입,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퍼플잡(유연근무제, 시간제근무) 확산 정책이나 일부 가족친화기업들이 시행 중인 가족의 날 행사, 자율출퇴근제 등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일·가족양립을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제도적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녀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고용형태의 확고한 정착도 필요합니다.

여성인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미래사회의 다크호스입니다.

워킹맘이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일가족양립의 제도 보완과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야만 행복한 가족, 활기찬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소통과 화합의 세상을 펼치는 전국지도자대회

— 주부교실 지도자 1,200여명이 참석해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 및 역량 강화 —

본회에서는 16개 시·도지부 및 지회 회장단 및 임원급 지도자들이 1박 2일 동안 결속과 화합을 다지며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해마다 다른 주제를 선정해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4월 20일~21일 1박 2일 과정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소통과 화합의 세상을 펼치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란 주제로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16개 시·도지부 회장단이 이끈 지부기 입장과 박인레 사무총장의 사회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주부교실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지도자들에게 공로패와 표창패, 10년 이상 봉사활동을 해온 지도자들에게 10년 근속상을 시상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회 이윤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가 높아가면서 사회통합과 소통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고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 향후 성숙한 한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따뜻함, 부드러움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의 치사 대독을 위해 자리해주신 강병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 역시 주부교실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도자 한분 한분이 사회통합을 만들어 가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소통과 화합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 최광옥 본회 충청북도 지부 회장은 소통과 화합의 세상을 펼쳐가기 위한 ‘우리의 다짐’ 결의문을 선창하고 참석한 지도자 모두가 손을 들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강연에서 전성철 세계경영

연구원 이사장은 “아시아시대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부상은 우리 경제 성장의 큰 기회만큼 국가경제의 초석이 되는 가정경제의 관리자인 주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문용린 서울대교수는 “세계화시대 한국인의 도덕성”이란 주제로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진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직, 약속, 배려 등의 덕목을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저탄소녹색소비문화정착을 위한 여성을 역할”이란 주제로 친환경에너지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선 최종 소비자인 여성의 결정적인 역할이 중요하므로 주부교실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가스안전사고 제로사회 정착을 위한 결의 다져

오후 4시 40분 가스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가스안전사고 제로사회 정착을 위한 소비자 결의대회”에는 박순자 국회의원, 조은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대회를 빛내주었다.

본회 이윤자 회장은 대회사에서 가스사용 및 관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 요소임을 잊지 말고 우리 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평소 일상생활에서부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

부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인 박순자 국회의원은 특히 여성 지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부교실 회원들의 뜻 깊은 활동을 격려하며 가스 사고를 비롯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은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는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축사를 대독해 가스안전사고 제로사회 정착을 위한 예방 및 안전관리, 더 나아가 녹색생활 실천에 주부교실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 가스안전사고 제로사회 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박보봉 본회 울산광역시지부 회장의 선창에 따라 주부교실 지도자 모두가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수돗물 사랑 시민운동”에 앞장서기로

다음날 오전 9시 다시 대회장에 모인 지도자들은 건강한 세상을 위한 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돗물사랑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건강한 세상을 위한 수돗물 사랑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본회 이윤자 회장은 개회사에서 주부교실 지도자 모두가 미래의 물 부족국가에 대비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물 사랑을 실천하는 캠페인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건호 K-water 사장은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물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부교실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의 위생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축사에 대한 화답으로 수돗물 사랑 실천을 결의문을 채택해 김성숙 본회 서울 송파구지회 회장의 선창에 따라 지도자 모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과제인 “수돗물 사랑 시민운동”에 앞장서는 주부교실 지도자가 되기로 다짐했다.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염경택 K-water 4대강 사업본부장은 “환경과 생명이 깨어나는 우리강 살리기”를 주제로 기후변화와 물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 등을 소개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결의 다져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이면서 소비자 리더로서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내빈으로 자리해주신 하영제 농림수산물식품부 제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식품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주부교실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 역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우리 축산업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주부교실 지도자들의 역할에 감사하며 국내 축산물 소비에 앞장서는 소비자 리더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더불어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과 이병모 양돈협회 회장의 축하 인사말씀으로 대회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격려사와 축사에 대한 화답으로 주부교실 지도자 일동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결의문을 채택해 이인호 본회 경상북도지부 회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 모두는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자로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애용 및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기로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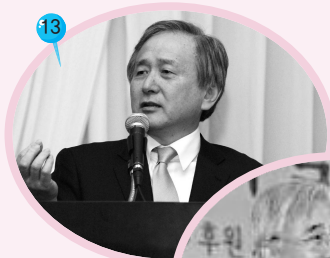
노수현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축산 정책 방향”이란 주제강연으로 친환경 축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고, 연이어 홍혜걸 의학전문 기사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라 주제로 알면 유익한 건강수칙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참석한 주부교실지도자 모두는 폐회식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지도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 ① 이윤자 본회 회장의 대회사
- ② 대회 시작을 알리는 16개 지부기 입장
- ③ 공로패·10년 근속상을 받는 수상자들
- ④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의 치사
- 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의 치사를 대독하는 강병삼 과장
- ⑥ 축가를 부르는 합창단
- ⑦ 최광옥 본회 충청북도지부 회장의 결의문 선창에 복창하는 주부교실 지도자들



- ⑧ 가스안전사고 제로사회 정착을 위한 주부들의 역할을 강조한 박순자 국회의원
- ⑨ 박한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축사를 대독하는 조은규 이사
- ⑩ 가스안전사용 결의문을 낭독하는 박보봉 본회 울산광역시지부 회장
- ⑪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의 축사
- ⑫ '수돗물 사랑 시민운동'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김성숙 본회 서울 송파구지회 회장
- ⑬ 첫날 주제강연을 맡아주신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 ⑭ "환경과 생명이 깨어나는 우리강 살리기"를 주제로 염경택 K-water 4대강사업본부장의 강의
- ⑮ 하영제 농림수산물식품부 제2차관의 격려사
- ⑯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축사
- ⑰ 이병모 양돈협회 회장의 축사
- ⑱ 이낙연 국회의원의 축사
- ⑲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선창하는 이인호 본회 경상북도지부 회장
- ⑳ 노수현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의 축산물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
- ㉑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를 주제로 홍혜걸 의학전문 기자의 강연

소비자의 소리

인터넷 유료 사이트 계약 철회 거부해

내용 유료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오디오닷컴’에 회원 가입 후 음악들을 살펴보니 마음에 드는 음악이 별로 없어 가입 후 5분도 되지 않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탈퇴 신청을 하였지만 스페셜 멤버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청구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음악 다운로드 받지 않았으며 별도 혜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철회 신청을 하는데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해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업체측에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전달하니 홈페이지에 환불 불가에 대한 별도 공지사항이 나갔고 휴대폰 인증번호까지 소비자가 입력해 회원 가입한 상태이므로 환불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디오닷컴 이용약관 청약철회 조건에 “유료서비스 사용 이력이 없는 회원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음을 전달해 약관에 근거하여 환불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업체측은 약관

확인 후 소비자 통장으로 환불 처리해 주었다.

해지 관련 서류 제출 지연으로 위약금과 이용료 청구돼

내용 2009년 초 LG 텔레콤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가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설치하였다. 2009년 12월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고, 올 1월 인터넷 이전 신청을 하니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 해지를 요청했다.

LG텔레콤 측에서는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해주겠다고 하였고,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4월 말에 필요 서류를 발송했다. 그러나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처음 말과 달리 위약금과 1월 한 달 이용요금을 통장에서 인출했다.

처리 해당 업체측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해지 기간 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간을 이미 경과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회는 업체측에 인터넷 가입자명과 가게 사업자명이 달라 소비자가 관련 구비서류가 복잡했고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시일을 넘

긴 사연을 전달해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고,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1월 청구 요금과 해지 반환금을 모두 환불기로 했다.

구두 반품시, 박스 포장 및 구성품 비용 과다 청구돼

내용 자녀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캐주얼 구두를 구입하였으나 물건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업체측에 반품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신발을 보냈다. 업체측에서 신발을 받아 보니 신발을 넣어서 보낸 상품 박스와 구두 주머니 등 구성품들을 함께 보내주지 않았으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상자를 포함한 포장 구성품 가격이 얼마냐고 문의하니 5만원이라고 하는데 9만원 정도 하는 신발에 기타 구성품의 가격이 5만원이라는 것이 부당해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먼저 업체측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함과 포장 및 구성품에 대한 별도 요금 부과는 부당함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신발 포장 구성품과 포장 박스의 경우 신발 보호를 위해 별도 제작돼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반품시 회수되어야 하고, 환불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음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린 상태이므로 환불 불가함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본회는 업체측에 구두 구성품의 비용이 과다 청구된 점과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 반품 비용으로 구입가의 50%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의 억울함을 전달 했고, 이후 업체측은 구성품 개당 가격 및 택배비 포함 15,000원을 제한 나머지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기로 했다.

디자인·치수 맞지 않는 의류 환불 요청 거부해

내용 동대문 밀리오레 매장에서 일주일 전 원피스 2벌을 구입하였다. 한 벌은 매장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바로 가져오고, 나머지 한 벌은 사이즈가 없어 업체에서 공장으로 별도 주문하여 택배로 물건을 받았다.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경우 생각보다 품이 넉넉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고, 공장으로 주문한 의류는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가 너무 짧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려고 했지만, 구입하고 싶은 의류가 없어 환불을 요청하니 교환증 처리만 가능하고 환불을 거부했다.

처리 의류 매장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7일 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환불해줘야 함을 알리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매장측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입한 원피스는 환불이 가능하나 공장에 별도 제작 주문한 원피스에 대해서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본회는 매장과 소비자 간 중재를 통해 공장으로 별도 제작 의뢰했던 원피스는 기장 부분을 무료 수선해 입기로, 매장에서 구입한 원피스 한 벌은 소비자의 요구대로 환불해 주는 것으로 처리했다.

(오성희 / 중앙회 소비자상담실장)



가전제품, 똑똑한 관리 노하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기술개발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요즘 같은 불황기엔 가전제품을 잘 관리해 오래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 방법 중 하나다. 제품별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법 및 보관요령을 알아보자.

◆ 냉장고 - 70%만 수납, 다른 가구와도 공간 확보해야

냉장고의 수명은 10~12년. 소음이 심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교체가 필요한 시기이다. 냉장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꽉 채우지 말고 70%정도만 활용한다. 내용물이 많으면 공기 순환을 방해해 성에가 발생하고 냉각기에 손상을 줘 작동에 문제가 있다.

벽면은 물론 다른 가구와도 최소 2cm 이상 공간을 확보해줘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여닫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장식용 자석을 많이 붙이는 것도 방열을 방해할 수 있다.

◆ 에어컨 - 필터 청소 자주 해줘야

냉매가스가 소모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최고 성능 유지 기간은 보통 7~8년이다. 에어컨을 냉방 운전한 뒤에 10~20분 후 배수호스로 물이 나오면 냉매가스가 충분하다는 것

을 뜻한다. 에어컨을 오래 쓰려면 실내기 필터를 자주 청소해 줘야 한다. 필터 청소는 물로 씻은 뒤 그늘에서 완전 건조시키면 된다. 실외기는 주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장애물이 많으면 냉매가 충분히 있어도 냉각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 세탁기 - 용량 초과하면 모터에 무리

세탁기 또한 관리만 잘하면 10년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평한 곳에서도 소음이 많이 날 경우는 교체가 필요하다. 평평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정해진 빨래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모터에 무리가 가서 수명이 짧아지므로 적정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드럼세탁기는 욕실 안이나 욕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탁기의 수명을 크게 줄이는 지름길이다. 물이 튀어 제품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 김치냉장고 - 얼음, 탈취제 관리에 신경 써야

내부에 얼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얼음을 제거할 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건 금물. 내부 식품을 모두 꺼낸 후 해당 칸 전원을 끄고 도어를 열어두면 얼음이 빨리 녹는다.

탈취제를 재생하려면 덮개를 앞으로 당겨 빼내어 분리시킨 후,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거나 햇빛에 쬔 후 탈취제 덮개를 넣어 다시 조립한다. 김치냉장고 외부는 부드러운 수건에 증성세제를 묻혀 닦은 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내부는 마른 행주나 헝겊으로 닦는다.

◆ 전기압력밥솥 - 패키지는 1년 주기로 교체

전기압력밥솥 수명은 4년 정도이다. 청소가 미흡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청소나 소모품 교체를 제 시기에 하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 패키지는 1년 정도 주기로 교체하고, 증기배출 구멍은 전용 철사로 뚫어준다. 구석진 곳은 면봉이나 칫솔로 청소한다.

◆ 청소기 - 먼지봉투 관리에 신경 써야

청소기 수명은 10년 정도이며 모터 소음이 크다면 교체해 사용하는 게 낫다.

관리의 핵심은 먼지봉투. 먼저 봉투가 꽉 찬 상태에서 청소하면 모터가 손상될 뿐 아니라 흡입력도 약해진다. 보관할 때에 호스가 꼬이면 찢어져 제 성능을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가전제품 수명만큼 사용하려면 ...◆

1 매뉴얼을 반드시 읽자

매뉴얼에는 제품의 설치와 사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

2 주기적인 청소는 필수

전자제품의 가장 큰 적은 먼지. 전자제품은 저절로 자성을 띠어 주변의 먼지를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으므로 먼지를 철저히 제거해야 그만큼 오래 쓸 수 있다.

3 새 디자인의 유혹을 뿌리치자

계절마다 새로운 가전제품이 유행처럼 쏟아지지만, 기본적인 사양은 그 전 시점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한번 구입한 제품은 수명이 다할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환경보호 및 자원낭비를 막는 일이다.

4 덮개를 씌우지 말자

모든 가전제품은 기본적으로 열이 발생하며 이것을 원활히 방출해야만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인테리어나 먼지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전제품 위로 덮개를 덮어두었다면 모두 벗겨내도록 한다.

5 습한 곳은 피하여 설치하자

세탁기, TV, 오디오 등 많은 제품들이 습한 곳에서는 더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 특히, 세탁기를 욕실에, TV나 오디오를 창가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출처: 여행상자(여성가족부 블로그)〉



과일 · 채소류 이렇게 씻으세요

– 물로 잘 씻으면 ‘농약 걱정’ 없어 –

국내 유통 농산물 대부분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척방법으로 잘 씻느냐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이다.

■ 딸기

딸기는 잘 무르기 쉽고 잿빛 곰팡이가 끼는 경우가 많아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게 된다. 딸기를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준다. 꼭지 부분은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먹지 않고 남기는 게 좋다.

■ 포도

포도알 사이까지 깨끗이 씻기 어려워 일일이 떼어내서 씻는 경우도 많지만, 송이째 물에 1분 동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헹궈서 먹으면 괜찮다.

■ 사과

물에 씻거나 헹궈 등으로 잘 닦아서 껍질째 먹어도 좋다. 단, 꼭지 근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상대적으로 농약이 잔류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먹으면 된다.

■ 오이 · (양)배추

흐르는 물에서 오이표면을 스펀지 등으로 문질러 씻은 다음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지르고 다시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된다. (양)배추의 경우 겉잎에 농약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겉잎을 2~3장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잘 씻으면 된다.

■ 고추

고추는 끝 부분에 농약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에 일정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먹으면 된다.

■ 깻잎/ 상추

잔털이나 주름이 많은 깻잎이나 상추의 경우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야채보다 충분히 씻는 게 좋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농약이 대부분 제거된다.

■ 파

하단부분에 농약이 많으며 떼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더 많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시든 잎과 함께 외피 한 장을 떼어내 버리고 물로 세척하는 게 좋다.

※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라면 안심해도 되나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을 씻거나 조리하기 전 그대로 섭취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조심!

– 임대실적, 수익, 상권 등 속여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상가와 오피스텔을 팔기 위한 허위·과장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관련 부당광고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 부당광고 주요유형

- 고시원을 ‘사위텔·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바꾸는 등 명칭만 변경하여 마치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광고
-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
예) 현 15% 수익확정 보장, 3,900만원 투자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보장
-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가가 임대된 것처럼 광고
예) “전체상가 임대완료”라고 광고하였으나 일부는 계약해지
- 설치하지도 않은 단지내 편의시설(체육공원 등)을 마치 설치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편의시설(지하철역,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음에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
-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특정 직업군의 사택인 것처럼 광고

■ 소비자 유의사항

상가·오피스텔 관련 광고는 지방신문·전단지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광고되고 있어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치 않아 소비자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제반사항을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한다
-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한다.
- 분양현황, 상권, 주변 환경,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융자포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구체적인 수익성 조건(확정 수익 보장기간·금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래 이용가능 시설(지하철역, 백화점, 학교 등)은 관련허가 취득여부, 진행상황 등을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한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꽃 선물

이 세 기 / 소설가 · 언론인

꽃다발은 언제 받아도 반갑고 향기로운 선물이다. 용도도 다양하다. 사랑고백이나 결혼 프로포즈, 부모와 스승에 대한 감사, 생일과 졸업, 시상식과 취임식, 장례식장이나 공연장에도 꽃이 빠지면 행사가 썰렁해진다. 이사 간 집 방문과 병문안, 오랜만에 귀국하는 친지를 위해 공항에 나갈 때도 꽃다발을 안겨주는 것이 최상의 환영일수 있다. 또 연인끼리 만난 지 100일이 되는 기념으로 준비해둔 100송이의 장미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사랑의 확인이다. 한데 이 귀한 꽃 선물이 언제부터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얼마 전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원로무용가의 춤 데뷔 70주년 기념공연에 갔었다. 초대장에는 화환을 사양한다는 정중한 글귀가 있었지만 대낮부터 화환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개막이 임박하자 로비는 물론 공연장 밖까지 화환의 물결이 줄비하게 줄을 이었다.

무용계의 거목에다 예술단체장을 오래 한 분이어서 인맥도 다양하고 화환을 보내온 사람들도 어마어마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명사들은 거의 다 화환을 보내왔고 화환리본에는 대통령을 필두로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문화예

술단체장들의 이름과 직함이 붉은 먹 글씨로 씌어 있었다.

꽃 더미에 둘러싸인 화려한 공연이었고 본인도 무척 만족하는 듯이 보였다. 그날 로비에 도열된 화환과 화분은 줄잡아 200여 개, 화환 하나에 10만 원대에서 20만원, 동양란 한 분에 20만원만 따져도 어림짐작으로 3천만원은 넘었다. 이는 공연에 든 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했다.

그렇다면 공연이 끝난 후 저 화환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화분의 경우는 집으로 실어가거나 수고한 사람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지만 화환은 크기와 부피 때문에 처치 곤란할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꽃집에서 도로 실어가는 조건으로 화환을 주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시 가져간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화환 재활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폐기처분 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야할 판이다. 그러니까 서너 시간 가량 극장 로비를 장식한 값이 평균 1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은 간단해진다. 남는 것은 화환에 늘어트렸던 축하 리본뿐이며 그 리본을 기념으로 간직해야 한다.

꽃 선물이 반갑지 않은 것은 이처럼 무의미한 낭

비가 따르기 때문이다. 연말 연예인 시상식 풍경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수상자가 호명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축하한답시고 무대로 올라와서 꽃다발을 안겨주지만 누가 무슨 꽃을 주었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서로 모른다. 그런가하면 잠시 후 이 꽃다발을 다시 들고 올라와서 다음 수상자에게 떠안기곤 한다. 이를테면 말라비틀어진 싸구려 꽃다발을 몇 개 준비했다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식이다. 이러니 꽃다발이 천하고 험프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밖에 없다.

한때는 수백송이의 장미와 카네이션을 기념일과 관련해서 상자에 채워 넣는 꽃상자가 유행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꽃송이가 가득 찬 상자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지만 꽃 머리만 땡강 자른 자체가 잔인한데다 꽃을 꽃병에 꽂을 수 없으니 금방 시들어버렸고 이는 사랑이 쉽게 사그라진다는 상징성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 는 카네이션 코사지도 마찬가지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온 싸구려 조화처럼 조악하고 향기도, 표정도 없는 코사지를 길바닥에다 쓰레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아치운다.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주문하면 꽃집주인은 꽃대를 이리저리 자르면

서 시간을 끌거나 꽃다발 디자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듯이 생색을 내기 일쑤다. 그리고 커티플라워나 하트식으로 묶어 만든 인위적인 꽃다발을 번쩍거리는 색종이에 싸주면서 10만원, 15만원을 부른다.

꽃다발을 받으면 꽃의 의미와 향기에 취해 어떤 값비싼 보석을 받았을 때 보다 감동해야하는데 감동은커녕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해 질 수밖에 없다. 슬그머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선지 요즘 어른들은 어버이날, 꽃보다 현금을 원하고 있다. 행사나 경사에 꽃이 없으면 황량하다고 했지만 결국 쓰레기 취급해야하는 화환이나 꽃다발 보다 실용적인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요즘 새롭게 생긴 ‘꽃값(花代)’이라는 명목은 정성 없이 만든 꽃다발과 천정부지로 비싼 꽃값이 빚어낸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달인 오월은 꽃의 달이기도 하다. 꽃은 여전히 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파스칼의 팅세에 보면 장미와 백합은 영혼을 지닌 꽃이라고 한다. 마음에서 우러난 꽃다발은 아무리 두툼한 돈 봉투도 그 도도한 향기를 따르지 못한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간절한 소망과 애정이 담긴, 아름답고 향기로운 선물을 준비할 때다. ■



조선일보신춘문예 소설 당선, 현대문학소설추천, 서울신문논설위원, 영상자료원 이사, 영상물등급위 위원, 저서: 창작집 『바람과 놀며』, 『그다음은 침묵』, 이화여대총장 『김옥길평전』, 『명무 강선영평전』, 한국예술가 100인 『빛을가꾸는 에피큐리언』, 『예술을뚫고 들어간 사람들』, 『한국 YWCA 80년사』 등 다수, 현재 차범석연극재단 이사, 영상물등급위 영화예심.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보며 배워요!

- 에너지체험관 「행복한 i」 -

가족 나들이가 많은 신록의 계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단순 놀이시설이 아닌 놀며 배우는 놀이터 전시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 아이들이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에너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험 공간 '행복한 i'를 소개한다.

화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20여종의 전시물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관이 바로 '행복한 i'이다.

◆ '행복한 i'는 인터넷 예약부터

'행복한 i' 방문은 인터넷 예약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전 예약을 하고 체험관에 방문하면 먼저 관람객 정보가 들어있는 RFID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이 카드로 전시물 마다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갔다대면 체험을 할 수 있다. 글을 통해 먼저 에너지 여행을 떠나보자.

'에너지 여행'은 입구에서 리더기에 카드를

대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우주선과 함께 시작한다. 첫 번째 코너는 핸들을 돌려 공을 레일 위에 올리면 공이 레일을 따라 돌아 스크린 속으로 쏙 들어가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움직이게 되는데 공이 높이 올라갈수록 위치에너지가 커지고,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즐거운 공놀



에너지체험관 '행복한 i' 내부 전경



아이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배울 수 있는 '햇빛이 뽀뽀'를 체험하고 있다.

이' 코너다. 이어 열 감지카메라를 통해 우리 몸의 열에너지를 볼 수 있는 '내 몸의 열에너지'가 있다.

다음으로 '불이 활활'에서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에너지 모형을 지정된 위치에 올려놓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바람의 힘을 이용한 농구공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바람이 뽀뽀'에서부터 태양광, 파력, 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원리에 대해 배운 뒤에는 터널 속에서 원자핵을 밟으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내가 만드는 원자력'과 동물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다친 곳을 찾아내는 '방사선 동물병원', 원자력발전 내부를 가상으로 둘러보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통해 원자력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우주선을 운전하고 환경도시를 만들어보는 게임존을 통해 에너지에 대해 재학습할 수 있는 코너로 되어 있으나 이전 전시물들

을 모두 체험하고 나서야 체험할 수 있다.

아~! 마지막으로 1층 체험관을 나서기 전 쿠키를 통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누가 누가 잘하나' 코너도 있다.

◆ 체험관과 에너지교실 무료참가

2층 체험관에서는 예약을 통해 태양전지 멜로디, 천연비누 만들기, 터치램프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며 에너지와 과학 원리를 배우는 에너지교실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동물의 다친 부위를 찾아보는 '방사선 동물병원'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2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관람문의 및 예약 : (02)2191-1400~1,
www.hiknef.or.kr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관람료 : 무료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글 : 주부교실 편집자 주, 자료제공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숨그네

〈헤르타 뮐러 著, 박정희 譯 / 문학동네〉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독일계 소수민족 가정에서 성장한 헤르타 뮐러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전까지 헤르타 뮐러는 우리에게 무명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책이 단 한권도 번역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노벨문학상 덕분에 헤르타 뮐러의 『저지대』와 『숨그네』가 출간되었다. 『저지대』는 이 작가의 데뷔작이며 단편 모음집이다. 『숨그네』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한 강제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장편소설로, 자유가 박탈당한 한계 상황속의 인간 군상들이 응축된 시적 언어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바라보고 처절한 배고픔 앞에서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처참한 상황을 헤르타 뮐러는 침묵에 가까운 숨죽이는 언어들로 복원해나간다. “모국어란 피부와 같아서 누군가한테 펴히되거나 심지어 사용을 금지당했을 때 피부에 상처를 입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한 헤르타 뮐러가 어디로도 나아갈 길 없는 극단의 공포로만 이루어진 상황을 어떻게 언어로 극복해나가는지 『숨그네』는 강렬하게 보여준다.

〈추천자 : 신경숙(작가)〉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윤성금 / 이매진 출판사〉



서울 정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젊은이는 초등학교 때 걸어서 2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종로서적에 있는 수많은 책을 마음대로 읽기 위해 그 먼 길을 걸어서 다녔다. 그 젊은이는 커서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받는 회사 10년 이상 다녔다. 그러던 그 젊은이는 어느 날 우연히 책 하나를 집어 든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다. 혁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필’을 받은 그 젊은이는 2002년 곧바로 회사에 사표를 낸다. 보기에 따라서는 참 철없는 젊은이다. 출판사에 취직해 2년 정도 다녔고 책 만들기의 진부함에 진력이 나 헌책방에서 다시 2~3년을 보낸 후, 2007년 봄 그는 자기가 읽은 책, 자기가 권하고 싶은 책만 파는 그런 헌책방을 냈다. 이런 젊은이가 서울 한 구석에서 열심히 자기 삶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 서글프다. 반가운 것은 여전히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이고 이런 젊은이가 갈 수 있는 곳이 헌책방뿐인가 해서 서글프다. 모든 것이 돈과 권력, 명예뿐인 세상에서 이런 젊은이가 서울 한 곳에서 고물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교양이다. 〈추천자 :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서울특별시지부

디지털방송전환 홍보 및 교육

시지부(회장 이윤자)에서는 2013년 디지털방송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방송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지난 4월 28일, 5월 7일과 12일 중앙회 3층 강당에서 주부대학 동문회 및 모니터 등을 대상으로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 Korea) 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디지털방송 전환의 필요성, 소비자 혜택 등을 홍보하며 관련 피해 사례 및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부산광역시지부

교실개강

시지부(회장 김기묘)에서는 지난 4월 12일~18일 상반기 교실개강식을 가졌고, 최근 천안함 사고 등으로 국가 안보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첫 수업으로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소속 안보 담당자를 초빙해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남성 대상 소비자 순회 교육

민방위 훈련 대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7~8회에 걸쳐 상반기 순회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6일 좌1동 주민자치센터 민방위교육장에서 김기묘 시지부 회장이 첫 교육 강사로 자리해 방

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 피해 사례를 비롯해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및 구제 방법 등을 설명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상반기 소비자 모니터 교육

시지부(회장 손기순)에서는 4월 2일~5월 28일까지 소비자 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8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 교육으로 지난 4월 2일 본 시지부 강의실에서 소비자 모니터,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역할 및 관련 법령 및 소비자피해 예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며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

청소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4월 20일, 27일, 29일 용호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기초지식, 청소년 상대의 악덕상술과 온라인상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며 피해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인천광역시지부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시지부(회장 한혜자)에서는 우리 농산물 보호 및 안전성 확보, 애용에 앞장서기 위해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월 15일 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천 출장소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22일에는 회원 15명이 석바위 시장과 신기촌 시장일대에서 원산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농산물 불법 유통 근절 및 우리 농산물 애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원자력발전소 견학

최근 대체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지난 4월 6일~7일 1박 2일로 시지부 회원 80여명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했다.

봉사활동

계양구지회(회장 고영숙) 회원 8명은 매주 목요일 계양2동, 작전서운동, 계산3동, 효성2동 동사무소에서 민원 상담 안내 봉사활동, 회원 3명은 4월 2일 계양문화로에서 열린 나눔장터에서 판매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남구지회(회장 이은자) 회원 13명은 소속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 안내 및 상담 도우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6일 남구청 종합상황실에서 명예공무원 교육을 받았다. 22일에는 회원 5명이 신기천 시장 일대에서 농산물원산지표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남동구지회(회장 김연숙) 회원 20명은 매주 월~금요일 구월동 길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수술실 도우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 12명은 매주 월요일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제공 도우미 활동을 전

개했다. 또한 회원 20명은 4월 23일과 26일 각각 장수촌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 개최된 ‘장수촌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해 야생화심기, 미꾸라지 방류 및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동구지회(회장 유옥분) 회원 4명은 매주 2회에 걸쳐 서림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 어린이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 요원 활동을 실시했고, 회원 6명은 매주 1회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군내 독거노인을 위한 점심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강화군지회(회장 황경희) 회원 20명은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군내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웅진군지회(회장 김묘숙) 회원 3명은 매주 수요일 영흥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교실에서 건강을 위한 발 관리 요령을 소개했고, 4월 7일 회원 3명이 영흥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26일 회원 9명은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지난 4월 5일 회원 21명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과 함께 남광주시장 일대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원산지 표시 요령 및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입 농산물의 부정유통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 활동

농산물 명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0명은 지난 4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사무실에서 열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 교육을 참석했고, 이후 6월까지 개인당 30일을 정해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 및 원산지 표시 지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지부

<2010 주부교실 지도자 연수> 개최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지난 4월 6일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활동할 조직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시지부 임원 및 분회장 등 지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0 주부교실 지도자 연수>를 개최해 임명장 수여를 비롯해 주부교실의 전반적인 활동 소개 및 추진활동에 관한 분과토의 등을 진행했다. 김형태 한남대학교 총장이 “미래를 여는 선진여성”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주부로서의 현명한 삶의 자세가 선진 여성으로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33회 주부교실 회원 친선운동회

4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운동장에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주부”

라는 주제로 <제33회 주부교실 회원 친선운동회>를 개최했다. 30개교 2,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내빈 축하 경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다졌고, 최우수 특별상은 둔원초등학교, 최우수 모범상은 서원초등학교 등이 수상하는 기쁨은 누렸다.



울산광역시지부

친환경 농장 견학 및 일손돕기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친환경 인증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장 체험 기회를 가졌다. 지난 4월 12일 회원 60명이 친환경 농장인 21세기농원을 방문해 배꽃숙기, 토피어리 만들기 체험 및 배즙



가공공장을 견학하며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캠페인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5일 자전거 봉사단원 50명이 동천체육관 앞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어린이 다도 예절교실

4월 17일 주부교실 교육장에서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다도 예절교실'을 운영해 전통예법이 사라져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기본예절 교육을 실시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도덕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원자력발전소 견학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4월 27일~28일 회원 80여명이 울진 원자력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경기도지부

경기농산물지킴이 교육

도지부(회장 박명자)에서는 4월 2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각 지회 회장 및 농산물지킴이 및 일반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강사로부터 원산지 표시법, 허위표시 및 미표시 단속활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먹을거리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우리 농산물 보호에 앞장섰다.

소비자안전캠페인 및 봉사활동

구리시지회(회장 정순)에서는 지난 4월 19일 구리역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행동이 건전 소비문화 형성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 20명은 지난 4월 7일 토평 사회복지관에서 관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에 참여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도

과천시지회(회장 양명희)는 지난 4월 3일 주부교실 앞뜰매장과 매장 앞 주차장에서 회원 4명과 문원중학교 3학년 8반 학생 35명과 함께 "2010년 1차 CSO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win-win(지도)" 활동을 실시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및 참가한 학생들이 직접 재활용품 기증 및 판매활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격려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수여했다.

조사사업 및 유해식품 단속 활동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 명예 물가조사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명은 매달 정기적으로 광명 전 지역의 할인점을 대상으로 주요 생필품 소비자가격 및 유통업체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 물가요원 10명은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5명은 첫째, 셋째 목요일 학교 주변에서 유해식품 단속 활동을, 4월 23일~24일에는 집단 급식소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 제공시 청결, 보존식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소비자 교육 및 환경교육

수원시지회(회장 권순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이 성행해 노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3월 31일 정자동 동신 2차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 50분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피해 사례 및 구제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4월 6일에는 수원시여성회관 강당에서 주부 회원 등 일반 소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주부가 꼭 알아야 할 소비자권리

및 피해구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합리적 소비생활을 유도했다.



4월 7일에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회원 80명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강사를 초빙해 EM(유용미생물군) 환경교육을 실시해 EM 활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가정에서 보다 쉽게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개강

양주시지회(회장 이용숙)에서는 지난 4월 1일 서정대학교 소강당에서 상반기 교실개강식을 갖고 첫 수업으로 최근 재택부업, 취업 등 구인광고 등을 빙자한 불법 피라미드 판매 행위가 성행해 소비자 피해가 증

가하고 있어 관련 피해사례 및 구제 방법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용인시지회(회장 장복희)는 4월 23일 주부교실 회의실에서 교실개강식을 갖고 첫 수업으로 다과 상차림 예법 및 떡 만들기 등 우리 전통 음식의 맛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소비자교육 및 이동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오산시지회(회장 김형례)에서는 지난 4월 1일 남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오산시 노인대학 어르신 200분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급속한 소비환경의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인 노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노인 소비자 스스로 현명한 소비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4월 15일 회원 40명과 가전사 직원 5명, 자동차 A/S 담당자 12명이 함께 수청동 대우 1,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16일에는 양산동 늘푸른 오스카빌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

자 상담 및 전자제품, 자동차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산물 원산지 홍보 캠페인 외 봉사활동

성남시지회(회장 강용선) 회원 13명은 지난 4월 13일 중원구 상대원 1동 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고, 장애인 날인 20일 회원 10명은 분당구 야탑3동 무지개동산에가원에서 열린 장애인 행사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안양시지회(회장 장도희) 회원 20명은 지난 4월 5일 호계 노인복지회관, 13일 동안 노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제공 및 배식 설거지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4월 1일~2일, 12일~16일, 26일~30일 회원 70명은 교대로 아나바다 매장에서 연말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회원들이 기증한 재활용품을 판매했다.

평택시지회(회장 정희주) 회원 25

명은 지난 4월 7일과 30일 북부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회원 5명은 9일 지역 내 차상위가정 12세대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편, 4월 14일 명예감시원 5명과 일반 회원 22명이 송북시장과 서정리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부정유통 근절 및 우리 농축산물 애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북구여성회관에서 회원 40명이 교대로 매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카페를 운영해 다양한 도서를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서 주민들의 도서관화 활동 기회제공 및 여가시간 선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주군지회(회장 주금숙)는 지난 4월 1일 식품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장을 비롯한 회원 6명이 관내 식품 판매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15일에는 회원 26명이 군내 인

근 재래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홍보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우리 농산물 보호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한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4월 25일~5월 9일까지 열린 제22회 여주도자기 축제에 회원 25명이 참여해 도자기 홍보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강원도지부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 회원 3~8명은 매주 목요일 장애인복지관,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장성중앙병원을 각각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4월 20일 회원 4명은 태백예술평화회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식전행사 축하공연에 참여했고, 22일 회원 6명은 태백연화산에서 열린 '제5회 연화산가꾸기' 행사에 주변 청소 및 나무

심기 활동에 참여했다.



충청북도지부

농산물 명예 감시단 교육

도지부(회장 최광옥)에서는 지난 4월 1일 여성회관 늘봄교육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34명을 대상으로 명예감시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충주대학교 성웅경 교수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 및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4월 15일 농산물 명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5명이 성안길을 출발해 육거리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질서 확립 및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

청주시지회(회장 이상숙)에서는 민·관·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연 6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동소비생활센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무학전통시장에서 이동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상담을 비롯해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활동을 실시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봉사활동

괴산군지회(회장 전해옥) 회원 5명은 4월 5일 청천재활원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음성군지회(회장 김영옥) 회원 8명도 4월 22일 삼성면 덕정리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40분에게 손맛사지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말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충청남도지부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도지부(회장 조춘자)에서는 4월 23일 도지부를 비롯한 16개 시·군·구 지회에서 회원 총 160여명이 해당 지역 재래시장에서 "물가안정 및 우리 농산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농산물 애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합리적 소비생활 정착의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원자력발전소 견학

대체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지난 4월 9일 도지부 회원 80명이 영

광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안정적 인 전력수급을 위한 원자력 정책 설명 및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교육
논산시지회(회장 홍순영)에서는 4월 6일 취암동 교회에서 회원 및 주부 104명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생활 속 합리적인 소비 주체자로서의 주부의 역할과 튼튼한 가정경제가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음을 강조했다.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실버 경제교육
천안시지회(회장 지강희)에서는 4월 26일 노인회관에서 어르신 11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실버 경제교육”이란 주제로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노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 방법과 더불어 현명한 소비자 자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라북도지부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최원자) 회원 9명은 지난 4월 5일 전주 중앙시장에서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읍시지회(회장 김순자) 회원들도 4월 5일 수성동 재래시장 및 인근 음식점, 정육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고창군지회(회장 전옥선)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2명이 4월 12일 고창읍 재래시장 일대 및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활동
김제시지회(회장 김보배) 회원 10명은 지난 4월 2일 노인요양원 ‘평강의 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부안군지회(회장 김용순) 회원 10명은 4월 27일~5월 6일까지 열린 새만금갯벌축제 행사에 참가해 행사 안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군지회(회장 양순옥) 회원 10명은 장애인단체 ‘훈훈한 동네’가 기금마련을 위해 장수읍 왕대에서 운영하는 1일 식당에 참여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완주군지회(회장 안춘자) 회원 3명은 4월 2일 삼례읍 노인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귀반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라남도지부

원자력발전소 견학 및 문화탐방
도지부(회장 이승자)에서는 지난 4월 16일 회원 80명과 함께 녹색생장을 위해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영광원자력발전소를 견학했고, 이후 영광 불교 도래지, 백수해

안도로 등 문화탐방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의 및 자원봉사활동
순천시지회(회장 신애란)에서는 지난 4월 14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한 후 회원 및 주부 64명을 대상으로 강사로 초빙된 윤기중 국제 라이온스 클럽 총재 특별 위원은 “행복을 낚는 사랑과 실천”이란 주제로 교양강좌를 실시해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24일에는 회원 36명이 동천수변공원 일대에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
여수시지회(회장 이안자)에서는 홀로 계시거나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생신을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4월 8일, 12일, 13일 미평당산, 고락, 돌산 세귀지 경

로당을 각각 방문해 생일 잔치상을 마련해 노년의 외로움을 위로해 드렸다. 4월 7일, 12일~19일 여천노인복지관과 동여수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중식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4월 13일 회원 62명은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구례군지회(회장 마순남) 회원 23명은 4월 16일~20일 화엄사 신설지구에서 열린 지리산 남악제 및 구례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 무료 음료 제공 봉사활동, 7일~14일, 24일~25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및 전남태권도대회에 각각 참여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행사 도우미, 음료제공,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담양군지회(회장 김향자)는 지난 4월 24일 양로원 ‘예수마음의 집’에 입소한 어르신 58분을 모시고 담양온천을 방문해 목욕을 시켜드리고 정겹게 담소를 나누며 쓸쓸한 노년을 위로해 드렸다.

완도군지회(회장 정혜덕) 회원 23명은 4월 8일 완도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인대학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를 대접하며 쓸쓸한 노

년을 위로해 드렸다. 11일에는 청산도에서 열린 ‘청산 슬로시티걷기축제’에 참여해 행사 안내 도우미, 무료 음료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북도지부

노인 소비자 피해예방 순회교육
도지부(회장 이인호)에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과대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노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 교육이 미흡해 지난 4월 1일~6월 30일 15개 시·군지회에서 노인 소비자 피해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지부의 경우 지난 4월 28일 진미동 경로당, 5월 7일 고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30~5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소비자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 구제 안내, 노인 소비생활 주의점 등을 교육했다.



봉사활동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 회원 20명은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장매우들이 거주하는 온전 마을을 방문해 구입해 간 매실 묘목 등을 심어 주었고 떡, 다과 등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4월 17일~22일에는 회원 10명이 횡성공원에서 열린 '2010 경주 술과 떡 잔치' 행사에 참여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 및 어린이 날 행사 기부금을 사용했다.



구미시지회(회장 손창순) 회원 8명은 노인복지회관인 '어르신들의 전당'을 방문해 중식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문경시지회(회장 이명순) 회원 6명은 문희선교원 노인대학을 방문해 중식배식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상주시지회(회장 육순단) 회원 13명은 지난 4월 16일 상상관에서 열린 '삼월삼짇날 화전놀이' 행사에 참여해 행사 도우미 활동과 삼월삼

짇날 재연대회에 참여해 2등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영주시지회(회장 김시영) 회원 8명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하망성당 '만남의 집'을 방문해 중식배식 및 다과를 대접하며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 회원 35명은 매주 월요일 북구 학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22가구와 독거노인 2가구에게 식사배달과 배식 후 세척봉사활동을 실시했다. 4월 21일 회원 15명은 노인요양시설인 햇빛마을 '요셉의 집'을 방문해 운동요법 소개 및 다과를 대접했다.

고령군지회(회장 양혜숙) 회원 7명은 4월 8일~11일까지 대가야 테마공원에서 열린 고령 대가야축제에 참여해 복식체험관 행사 진행도 우미활동을 실시했다.

성주군지회(회장 김미경) 회원 5

명은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 3분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영양군지회(회장 최계숙) 회원 8명은 삼삼노인회관을 방문해 청소 봉사활동 및 다과를 대접하며 말년의 외로움을 위로해 드렸다. 회원 12명은 매주 목요일 군내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 6분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영천시지회(회장 이길자) 회원 10명은 4월 9일 지체장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야정신요양원을 방문해 청소 및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유정) 회원 4명은 4월 21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목욕 봉사와 함께 말벗이 되어 드렸다.

울릉군지회(회장 최윤정) 회원 5명은 4월 13일 장애시설인 한마음복지회관을 방문해 밑반찬을 만들고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청도군지회(회장 김영자) 회원 7명은 노인치매전문병원인 '에덴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예천군지회(회장 권춘선) 회원 10명은 4월 2일 인근 재래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우리 농산물 애용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경상남도지부

전국주부교실경남도 지도자 한마음대회

도지부(회장 김점숙)에서는 지난 4월 2일 마산 삼진 실내체육관에서 도지부 임원과 20개 시군지회 회장 및 회원 등 5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여성 역량결집 전국주부교실경남도 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김점숙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박수조 국장의 격려사와 마산시 김영철 부시장의 축사로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주부교실 지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우리 전통문화' 행사엔 참석해 주신 내빈과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

어 다양한 경기를 통해 친목을 다지며 경남도지부 발전을 기원했다.



식품명예감시원 활동 및 원자력발전소 견학

공중위생 강화, 원산지표시 홍보 등 안전한 식생활 확보를 위해 식품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명은 4월 1일~30일 한 달 동안 창원시 일대 음식점,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감시(모니터링), 위생 지도 및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4월 7일에는 회원 80명이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현장교육을 통해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월례회의 및 봉사활동

산청군지회(회장 성금순)는 지난 4월 19일 운영위원회 및 회원 25명이 모인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해 조직점검 및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7일에는 회원 7명이 산청노인

전문 요양원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말벗이 되어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농산물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도지부(회장 김영희)에서는 지난 4월 6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명이 동문재래시장과 수산시장 일대에서 건전한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상인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 캠페인

본회에서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범국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녹색구매행동으로 탄소제로 도시 도전!”이란 주제로 탄소캐쉬백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각 지부별로 교육 및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인지도조사 : 5월 17일~28일
(서울, 부산, 대구 등 15개 지역)
- 교 육 : 6월 1일~7월 15일
- 캠페인 : 7월 19일~10월 29일

■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의류심의분쟁조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매주 화요일 9:30~17:3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또는 퀵서비스 이용(지방에 한해 택배 가능)
〈세탁접수·처리부〉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첨부
- 접수문의 : (02)2265-5870, 2273-6300, 2485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

프로그램	개강일	기간	시간	수강료
특 강				
자연화장품 DIY	6월 9일	1개월	수요일 11:30~12:40	30,000원
근로자수강지원과정				
제과제빵기능사	6월 7일	3개월	월, 화요일 19:00~22:00	440,000원
포토샵, 일러스트(초급)	6월 8일	2개월	화, 목요일 19:00~22:00	300,000원
취업매니저 양성과정	6월 7일	2개월	월~금요일 14:00~18:00	무료
의류 CAD디자이너	6월 7일	2개월	월~금요일 10:00~14:00	무료
자격증대비반				
비즈공예반	6월 4일	3개월	금요일 10:30~12:00	90,000원
예쁜글씨 폼POP	6월 7일	3개월	월요일 10:00~12:00	200,000원
선물포장 초/중급반	6월 8일	3개월	화요일 10:00~11:30	90,000원